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3장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153–161쪽. 바로 다음 장이 14장으로 이어지므로 13장으로 보았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매체)' 가운데 첫째인 '사건'을 다룬다. 사건은 다시 자연과 역사로 나뉘고, 역사는 일반역사와 구속사로 나뉜다. 먼저 자연과 섭리를 살핀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실어 나르는 통로다. 그래도 하나님의 친절과 진노를 분명히 드러내어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죄 용서의 길은 보여 주지 못한다. 그다음 구속사를 살핀다. 구속사는 출애굽에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가 이어진 흐름이며, 자연계시가 주지 못하는 용서의 길을 연다. 프레임은 두 계시 모두 하나님의 권능·권위·임재를 그대로 전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중립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이 결론으로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레싱의 역사관을 차례로 반박한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사건'이라는 통로 (원문 소제목 없음)

프레임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통로를 '사건-매체'와 '말씀-매체'로 나눈다. 이 장은 그중 사건을 다룬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역사는 그 가운데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의 흐름이다. '역사'라는 말은 사건에 대한 말이나 글의 기록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말씀-매체'로 분류해 다음에 다룬다고 미리 밝힌다.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속죄·부활·승천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이스라엘·다윗과 맺은 언약, 교회의 선교, 재림과 최후 심판까지 포함된다. 프레임은 '일반역사'를 구속과 관계없는 부분이라는 좁은 뜻으로 쓰겠다고 정한다. 그러면서도 두 역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1. 계시의 통로: 사건-매체와 말씀-매체
2. 사건 = 자연 + 역사
3. 역사 = 일반역사 + 구속사
4. 구속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사역
5. 두 역사는 나뉘지만 서로 얽혀 있다

📜 2. [1. 자연사와 일반역사]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 준다. 다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다

프레임의 출발점은 이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과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빼고는 어떤 사실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성경도 자연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한다. 시편 기자는 자연 속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외하며 찬양한다. 프레임은 9장에서 살핀 내용을 다시 꺼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에게 할 일을 명령하고, 자연은 그 명령대로 움직인다. 그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자기표현이다. 그러나 선을 분명히 긋는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11장), 지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창조 말씀', '창조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막연하게 써 왔다. 프레임은 정확히 말하면 말씀은 창조 '위에' 있으면서 창조를 '통해' 말하는 것이라고 바로잡는다. 각주에 따르면 이 문제는 1970년대 도예베르트를 따르는 사람들과 벌인 논쟁의 주요 쟁점이었고, 부록 D에서 더 다룬다.

1. 모든 피조물과 사건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2. 근거는 창조와 섭리
3. 자연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표현

5. 말씀은 창조 위에서 창조를 통해 말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시편 19:1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선포한다. 자연계시의 대표 구절
시편 46:8-10 > 8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연 속 하나님의 경이로운 행위가 경외를 불러일으킨다
시편 65편 > **시편 65장** 1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	자연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
시편 104편 > **시편 104장** 1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3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	창조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예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말씀의 매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1] 자연계시의 두 얼굴: 친절, 그리고 핑계할 수 없음

자연계시는 먼저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 준다. 바울은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비와 결실기와 음식과 기쁨으로 자신을 증언해 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계시에는 무거운 면도 있다.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하는 역할이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이셨다.
프레임이 짚는 점은 셋이다.

-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넘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인격적 지식이다.
- 이 계시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가 담겨 있다.
- 사람은 이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꾼다. 종교를 버리지는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숭배가 성적 죄와 온갖 불의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연계시는 하나님 진노의 계시가 된다. 일반은총(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친절)도 사람이 배반하면 심판의 근거가 되어 핑계할 수 없게 만든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1장은 누구도 자연계시에서 죄 용서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라는 다른 계시로 온다(로마서 10장).

1.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친절(일반은총)을 보인다
2. 동시에 사람을 유죄로 판결한다
3.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
4. 사람은 진리를 막고 우상을 섬긴다
5. 자연계시에는 죄 용서의 길이 없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사도행전 14:17 >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비와 결실기로 자기를 증언하신 하나님. 자연계시의 친절한 면
마태복음 5:45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일반은총의 보충 근거
로마서 1:18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막는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계시가 진노의 계시가 됨
로마서 1:19 >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다. 계시의 분명함
로마서 1:20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21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도 않는다. 인격적 지식과 도덕적 요구
로마서 1:23 >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1:24-27 > 24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숭배가 성적 죄로 이어진다
로마서 1:25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로마서 1:28-31 > 28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온갖 불의로 이어진다
로마서 1:32 >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행한다. 도덕적 내용과 핑계할 수 없음
로마서 10:14-17 > 14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구원은 설교로 온다

📜 4. [1]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계시는: 찬양, 언약의 표, 구속을 기다림, 성경 적용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자연계시는 훨씬 밝은 의미를 띤다. 첫째, 신자는 시편 기자처럼 하늘과 땅에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둘째, 자연은 언약의 표가 된다. 계절의 규칙, 무지개, 증인으로 부름받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경고를 증언한다. 셋째, 자연은 타락 뒤 하나님의 저주로 부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러니 로마서 1장만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연은 구속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소망을 빼면 자연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자연은 성경을 일상에 적용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여덟째 계명을 세금 문제에 적용하려면 성경뿐 아니라 세금 제도(자연계시)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성경과 세상 둘 다 알아야 한다.

1. 신자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2. 자연은 언약의 표와 증인이 된다
3. 부패한 자연도 구속을 고대한다
4. 성경 적용에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5. 순종하려면 성경과 세상을 함께 알아야 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창세기 8:22 >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규칙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약속. 자연이 언약의 표가 됨
창세기 9:16 >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된다
신명기 4:26 >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신명기 30:19 >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천지를 증인 삼아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신다
신명기 31:28 >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천지를 증인으로 부르신다(같은 역할)
신명기 32:1 >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가 하늘과 땅을 향해 시작된다(같은 역할)
창세기 3:17-19 > 17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 후 땅이 저주받았다. 자연의 부패
로마서 8:19-23 > 19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자연도 구속을 바란다

여덟째 계명의 장절은 저자가 적지 않았다. 참고로 출애굽기 20:15에 있다.

📜 5. [1] 자연계시는 '인격적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안경

아니고, 자연에서는 실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연계시도 하나님 말씀과 같은 능력·권위·임재를 전한다고 할 수 있는가? 프레임의 답은 '그렇다'이다.

- 권위: 자연계시는 분명하고, 분명한 요구를 한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 따질 권리는 없으며, 그분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조건이 없다.
- 능력: 자연을 다룬 많은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한다.
- 임재: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곧 그분이 인격적으로 함께하시는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계시는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전하는 '무오한 매체'다. 결론은 이렇다. 자연을 해석할 때 인간 자율(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할 때에만 피조물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해하려면 성경 같은 다른 통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칼빈의 말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보아야 한다. 진리를 누르려는 우리의 불의한 욕망을 걷어 내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1. 자연에는 실제 목소리가 없다는 반론
2. 그래도 분명하고 요구하며 핑계를 막는다
3.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를 전한다
4. 자연은 하나님 말씀의 무오한 통로다
5. 해석은 자율이 아니라 성경의 안경으로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시편 19:3 >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다. 자연계시에는 실제 목소리가 없다는 반론의 근거
로마서 1:19-20 > [19]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자연계시는 분명하고 요구를 담는다. 권위의 근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1:32 >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알고도 불순종하니 핑계할 수 없다
시편 29:3-11 > 3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7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	물 위, 백향목, 광야에 울리는 여호와의 소리. 자연 속 다스리는 능력
시편 29:1-2 > 1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능력을 본 신자의 예배
시편 29:10-11 > 10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위에 왕으로 앉으신 여호와. 자연이 그분의 임재 자리가 됨
이사야 66:1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보좌, 땅은 발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근거
마태복음 5:34-35 > 3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발등상 (같은 역할)

📜 6. [2. 구속사]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 출애굽에서 부활과 초대교회까지

구속사는 하나님이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사건들의 흐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야기이며, 성경의 주요 내용이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전능한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안다.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서 부유해져도 여호와의 행위를 잊지 말라고 한다. 부는 하나님께서만 오며, 신실하지 않으면 그분이 거두실 수 있다. 이 행위는 다른 민족에게도 경고가 된다. 구약 전체에 이 주제가 울려 퍼진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행위에 깊은 관심을 둔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따라 짜여 있다.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죽음, 부활, 하나님 우편으로의 승천이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도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 각주는 사도행전 1:1을 근거로 든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도행전은 그분이 '계속하신' 일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또 각주에서 '표적과 기사'는 흔히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며, 프레임은 기적을 '하나님 주권의 특별한 증명'이라는 계시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고 덧붙인다.

1. 구속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이야기
2.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로 이루어진다
3. 그 행위로 사람들이 “여호와가 주님”임을 안다
4. 복음서의 중심은 표적,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
5. 예수님은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일하신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7:5 >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행위를 통해 주권이 알려짐
출애굽기 14:18 >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홍해 사건으로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같은 역할)
신명기 8:11-18 > 11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번성할 때도 여호와의 행위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	
시편 66:5-7 > 5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6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하나님의 행사를 와서 보라. 열방에 대한 경고
시편 135편 > **시편 135장** 1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3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4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5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며 찬양한다. 백성에게 중요한 주제임을 보여 줌
시편 136편 > **시편 136장** 1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행위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응답한다(같은 역할)
시편 145:4 >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능한 일을 전한다
시편 145:12	주의 능한 일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복음 2:11 >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첫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이 표적 중심으로 짜임
사도행전 2:22 >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분을 증언하셨다
사도행전 1:1 >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사도행전은 그 계속이라는 근거 (각주)
사도행전 15:12 >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전한다
히브리서 2:4 >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함께 증언하셨다
요한계시록 15:3-4 > 3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찬양

📜 7. [2] 율법과 복음, 축복과 심판: 단순한 공식으로는 부족하다

없는 나쁜 소식이고, 복음은 덜어 낼 것 없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프레임은 실제가 더 복잡하다고 본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엄격함과 함께 친절도 보인다. 신자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 자연은 언약의 표로, 구속의 완성을 향한 기다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는 일로 복음을 받쳐 준다. 거꾸로 구속사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 구속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는 동시에,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도 보인다. 축복과 심판은 떼어 놓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은 행동으로 애굽(뒤에는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다. 재림 때 백성은 기뻐하고 악인은 울며 통곡할 것이다. 각주에서는 '설교는 오직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론에 조건을 단다. 구속사를 성경 전체를 품을 만큼 넓게 이해하면 동의한다. 그러나 이야기 부분만 가리키고 성경의 도덕적 가르침과 지혜 문학을 빼는 뜻이라면 반대한다.

1. 구속사가 죄 용서의 길을 연다
2. 자연=율법, 구속사=복음은 너무 단순하다
3. 자연계시도 신자에게 복음을 받쳐 준다
4. 구속사에도 심판이 들어 있다
5. 축복과 심판은 같은 행동 안에 있다

📜 8. [2] 구속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

구속사도 자연처럼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를 모두 전한다. 프레임은 인격적 말씀 모델의 세 요소를 하나씩 적용한다.

- 능력: 이삭의 기적적 출생, 출애굽, 십자가, 부활은 성경이 보여 주는 '다스리는 능력'의 본보기다.
- 권위: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의 응답을 요구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구원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계명이 온다. 구원 행위가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 강하고 분명한 계시를 받았으므로 불순종할 때 더 큰 책망을 받는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물고기를 기적처럼 잡은 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친다. 그의 시선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었다. 기적 속에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

1. 구속사도 말씀의 통로지만 하나님을 다 전한다
2. 능력: 이삭, 출애굽, 십자가, 부활
3. 권위: 구원 선언 뒤에 계명이 온다
4.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5. 임재: 기적 앞의 베드로처럼 경외하게 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창세기 18:14 >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삭 출생에 나타난 능력
출애굽기 15:4-12 > 4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9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오른손. 출애굽의 능력
고린도전서 1:18 >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4 >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고린도후서 13:4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에베소서 1:19-21 > 19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신 능력
빌립보서 3:10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출애굽기 20:2 >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 서문의 구원 선언. 행위가 순종의 동기가 됨
출애굽기 20:3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구원 선언 뒤에 오는 계명(번역본의 '신 20:3'은 오기)
신명기 29장 > 1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4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큰 계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더 큰 책임
누가복음 12:48 >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에베소서 1:11	모든 일을 뜻대로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15장 > 1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	홍해 뒤의 노래. 하나님의 일이 경외를 불러일으킴
누가복음 5:1-10 > 1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	기적적인 고기잡이.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누가복음 5:8 >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임재 앞에 선 사람의 반응

📜 9. [2] 구속사는 분명하다: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레싱에 대한 답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구속사는 자연계시처럼 애매함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 주장으로 그는 세 입장에 답한다.

- 자유주의(5장에서 다룬 견해): 사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있는 '중립적' 자료이고, 해석은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프레임은 사람에게 사건을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가 없다고 답한다. 불신앙의 세속적 해석이 가증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중요한 뿐 아니라 의무다. 믿음의

- 신정통주의 전통: 달력에 적히는 역사적 사건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참된 계시 사건'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실제 시간과 공간의 사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답한다. 그렇다고 그 시공간이 세속 역사가가 자율적으로 의미를 정하는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은 '세속 역사'라는 연구 방식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라는 안경으로 보는 사람만 시공간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한다.
- 레싱: 역사와 신앙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하고 추한 도랑'이 있다고 한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작가다. 프레임은 그런 도랑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역사를 바로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신앙이 시공간 바깥의 신비한 사건으로 물러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역사 안에서 백성을 구속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불러 자신을 믿게 하신다.

1. 구속사는 애매함 없이 분명한 계시
2. 사건은 '중립'이 아니다(자유주의 반박)
3. 믿음의 해석만이 타당하며 믿음은 의무다
4. 계시는 실제 시공간 사건 안에 있다
5. 역사와 신앙 사이에 도랑은 없다

>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의 해석은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가 아닌 단 하나의 타당한 해석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매체(사건

매체·말씀-매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려 오는 통로다. 프레임은 이를 사건과

자연계시: 자연과 섭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다. 흔히 '일반계시'라고도 한다.

섭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일을 계속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일반은총: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비와 햇빛과 먹을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다.

구속사: 하나님이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사건들의 흐름이다. 언약에서 시작해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재림과 심판으로 끝난다.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말 거시는 일로 보는 프레임의 틀이다. 그 말씀에는 다스리는 능력,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가 담긴다.

자율성: 하나님의 계시 없이 내 이성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려는 태도다.

계시의존사색: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 생각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준 삼아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다.

표적과 기사: 성경이 '기적'을 부르는 이름이다. 프레임은 기적을 '하나님 주권의 특별한 증명'으로 본다.

신정통주의: 20세기에 자유주의에 반발해 일어난 신학 흐름이다. 이 장에서 프레임은 이 전통이 역사적 사건을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가리키는 표지판 정도로 본다며 비판한다.

레싱의 도랑: 18세기 독일 계몽주의 작가 레싱이 쓴 표현이다. 우연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영원한 신앙 진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이 있다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이 장의 결론

- 자연과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다만 사건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다.
- 자연계시는 분명하여 사람을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죄 용서는 구속사, 곧 그리스도와 그분을 전하는 말씀으로만 온다.
- 자연계시와 구속사 모두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를 전하며, 축복과 심판을 함께 담는다.
- 그러므로 사건을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석할 자리는 없다. 성경의 안경으로 볼 때만 바로 이해된다.
- 하나님은 실제 역사 안에서 일하셨다. 그래서 역사와 신앙 사이에는 도랑이 없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3편 · 자연이 말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